김장억 한국환경농학회 회장
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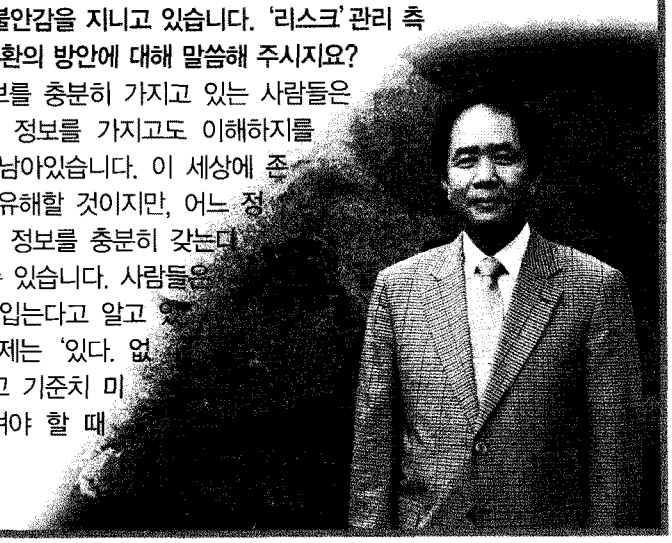
농산물인증에 '친환경' 용어 부적절

■ **'친환경농산물'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현재 각분야에 인증제도 범람으로 구입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농식품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?**

친환경농산물이란 용어는 태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업환경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용어이지 농산물인증과는 의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현행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내에는 유기 · 무농약 ·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GAP제도나 관행농업에 의한 것도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습니다. 현행 법규에 의한 바른표현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무상급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인증에는 친환경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, GAP농산물 등으로 구분하여야 혼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■ **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먹거리 수급의 불안감을 양상시키고 있습니다.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 농약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?**

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산물의 수량이나 품질 등을 원하는 수준으로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.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고 또한 잔류량도 적게 만드는 농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농업에서 농촌노동력의 고령화, GAP작물의 확대 보급 그리고 이상기후 조건 등으로 농약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꼭 사용해야만 하는 물질이라면 그 생산과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.

■ **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. '리스크' 관리 측면에 있어 연구책임자로써 인식전환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?**

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도가 낮습니다. 그러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유해할 것이지만, 어느 정도의 양에서 유해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는다면 농약도 의약품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의약품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해를 입는다고 알고 있습니다. 농약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'있다. 없다' 라는 사실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기준치 미만인가 아닌가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